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 먹거리 핵심거점 ‘우뚛’

개장 5년 누적이용객 59만명·매출 161억·713농가 참여
명현관 군수 “군민 건강·행복 증진…먹거리 기본권 보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운영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5년만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지역 농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 로컬푸드 직

매장은 개장 이후 누적 이용객 59만명, 누적 매출액 16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농의 농산물 판매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해 농업인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개장 당시 104개 농가, 210개 품목으로 출발한 직매장은 5년 만에 713개 농가, 809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정기적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회원도 9852명에

달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면서 지역 농산물이 지역 안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인근에 대도시가 없는 지리적 한계에도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통해 지역 먹거리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 초청 농가 체험과 어린이 장보기 행사를 운영하고, 목포 등 인근 지역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는 한편 로컬데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먹거리 정책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직매장 161억원,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104억원 등 총 265억원의 통합 매출을 달성하며 지역 먹거리 유통과 공공급식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의 성과를 보여줬다.

지난 13일에는 개장 5주년을 맞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생산자 간담회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 보고를 비롯해 전 품목 20% 할인, 로컬푸드 우수 생산자 시상,

매일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 제공, 소비자 대상 백설기 나눔, 출하자 격려 물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5주년을 맞아 그동안 매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지역 먹거리 생산에 힘써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청정 먹거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진도 백조호수공원 가을꽃 행사
9000여명 방문…가을 정취 만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최근 백조호수공원-나리방조제 일원에서 열린 ‘2026년 백조호수공원 가을꽃 행사’를 개최, 9000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가을꽃과 호수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나들이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본행사에서는 꽃길 관람과 함께 공연,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해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진도의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체험장에서는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자개 장신구(엑세서리) 만들기, 코스모스 키 달개(키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세대별 사진 명당(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진도 사진협회와 연계한 ‘무료 사진 촬영 서비스’가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꽃과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한 뒤 인화한 사진을 제공해 방문객들이 가을 나들이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대여해 주고 꽃길 관람바스를 무료로 운영했으며, 그늘막 쉼터와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행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이동 지원을 강화했다.

진도군은 내년에는 꽃 경관과 관광객의 편의를 더욱 보완해 백조호수공원을 계절별 관광 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마랑놀토수산시장, 올해 마지막 축제의 장
강진, 31일 폐장 행사…바다 정취·낭만 가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은 오는 3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랑놀토수산시장에서 올해 운영을 마무리하는 폐장 행사를 개최한다.

마랑놀토수산시장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시장을 찾아온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객 참여 노래자랑을 비롯해 화프기 쇼, 만족도 조사 이벤트, 영수증 이벤트, 토요일악회 등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먼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노래자랑이 열린다.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제철 생선을 손질하는 화프기 쇼가 진행된다. 시연 후에는 화를 1인분당 5000원에 선착순 판매할 예정이다.

시장 이용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장 내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전망대 카페에서 비즈팔찌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시장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지는 가수 강민주를 비롯한 출연진 5명이 참여하는 토요일악회가 열린다. 흥겨운 공연으로 올해 마지막 시장 운영의 대미를 장식하며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누적 방문객은 약 4만7000명, 누적 매출액은 약 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강진 마랑놀토수산시장은 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토요일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았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최근 백조호수공원-나리방조제 일원에서 개최한 ‘백조호수공원 가을꽃 행사’가 9000여명의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완도, 28병상 규모 ‘인공 신장실’ 신축한다

42억 투입 내년 4월 완공…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혈액투석 의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 신장실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2억4200만원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 34억9200만원과 군비 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인공 신장실은 완도를 가용리 산194-1번지 일원에 신축되며 지상 2층, 연면적

466.15㎡ 규모로 조성된다.

1층에는 홀과 물탱크, 펌프실, 의료 가스 시설 등과 2층에는 28병상 규모의 혈액 투석실(B형 간염 보균자 전용 포함)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공 신장실이 조성되면 혈액투석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됐던 이번 사업은 시공사의 폐업과 현장 여건이 좋지 않아 지연됐다.

하지만 군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선급·계약 보증 보증을 통해 사업비 회수 후 군비 손실 없이 10월 재착공했다.

김진 완도군수는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공 신장실 신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목포, 관광 자원 콘텐츠화
한국만화가협회와 업무협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최근 단일법인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목포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만화·웹툰과 접목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화·웹툰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목포시는 만화·웹툰 관련 사업과 행사 추진,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고, 한국만화가협회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나이가 든다는 이유로
'외로워'져야 할까요?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어르신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걸을 지켜드릴 때입니다.
노인의 날, 어르신을 위한 나눔에 함께해주세요

월 2만원 < 혼자가 아닌 하루 선물하기

후원문의 1811-1004

ARS
무기명후원 060-708-1004 (1만원)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사)한국나눔연맹

전국 26개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34년간 정부지원 없이 나눔활동